



말레이시아 배달서비스 활성화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이 시행되면서 외부 출입에 제한을 받고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의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 및 온라인 소비와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수요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2020년 온라인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약 17.6% 증가한 4,179 백만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말레이시아 온라인시장은 8.1%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에는 그 규모가 8,059 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쇼핑 사용자는 약 1.6백만 명으로 1인당 1년 평균 지출액은 약 192달러다.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도시 지역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식료품 쇼핑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여전히 식료품을 직접 보고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편으로 온라인 식품시장의 규모는 온라인 쇼핑 시장 전체의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온라인 시장규모(2017~2024)]

(단위 :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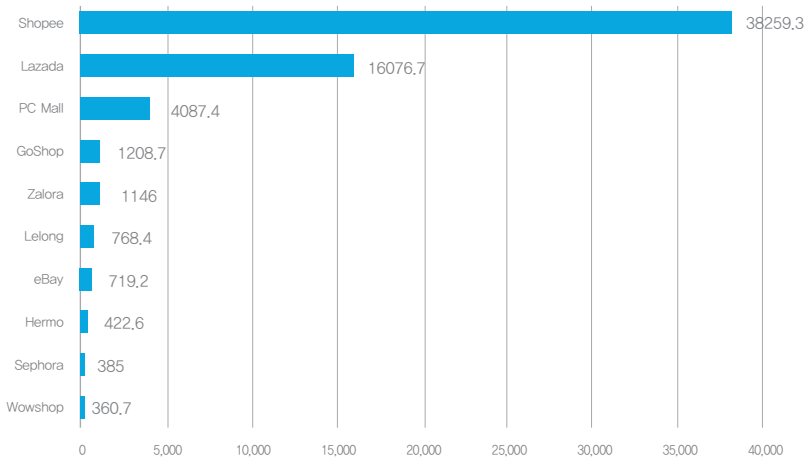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1,684	2,436	3,250	4,179	5,179	6,192	7,160	8,059

출처 : statista.com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핑물 순위는 월간 접속횟수 기준 Shopee, Lazada, PG Mall, GoShop, Zalora, Lelong, eBay 순으로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19년 즉석식품 시장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억 3,200만 링깃(약 3천만불)을 기록하였으며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즉석 식품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핑물 순위(20년 2쿼터 월간 클릭 수 기준)]

단위 : 천



출처 : statista.com

출처 :
자카르타지사 자체 조사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69640/malaysia-top-10-e-commerce-sites/>
aT 말레이시아 미니마켓 시장분석 및
한국식품 진출 확대방안 보고서



▲ Foodpanda



▲ Deliver Eat



▲ Uber Eats

출처 : freemalaysiatoday, the star, Soya Cincau

코로나 19 확산으로 배달서비스 활성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말레이시아 내에서 음식 배달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였고,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식당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간을 절약해주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

말레이시아에는 Foodpanda, Deliver Eat, Uber Eats, Honestbee, Running Man Delivery, Dahmakan, FoodTime과 같은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스타티스타(Statista)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배달서비스 플랫폼의 연간 수익은 전년 대비 8백만 달러가 증가한 22백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2년까지 배달 플랫폼 수익은 4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에는 106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서비스 플랫폼 이용자의 경우, 2017년 80만 명에서 2018년 1백만 명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플랫폼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3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의 경우, 2018년 83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리며, 전년 대비 31백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증가하였다. 플랫폼과 더불어 식당의 배달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며 2019-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9%를 보이며 배달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184백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당의 배달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 330만 명에 이르렀고, 전년 대비 약 70만 명이 증가하였다.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2022년에는 이용자 수가 약 6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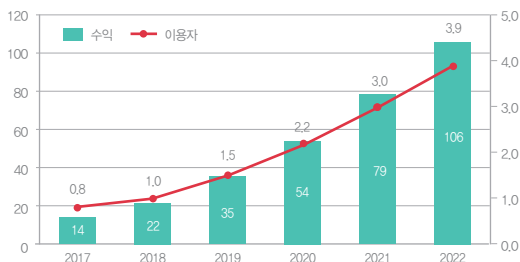
Key Point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현지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및 배달서비스 이용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이며, 록다운 및 섯다운으로 이동·외출·영업이 제한되어 온라인 주문, 홈트레이닝, 모바일을 통한 영화시청, SNS, Home Cook 등 가정경제(Home Economy) 기반 활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말레이시아 온라인시장 및 배달서비스 활성화, 소비자들의 특성 및 최근 트렌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유망 한국식품 발굴 및 집중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배달 플랫폼 수익 및 이용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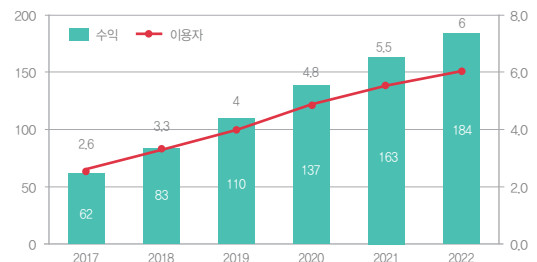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백만 명)



출처 : 스타티스타(Statista), 2019

[배달서비스 제공 식당 수익 및 이용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백만 명)



출처 : 스타티스타(Statista), 2019